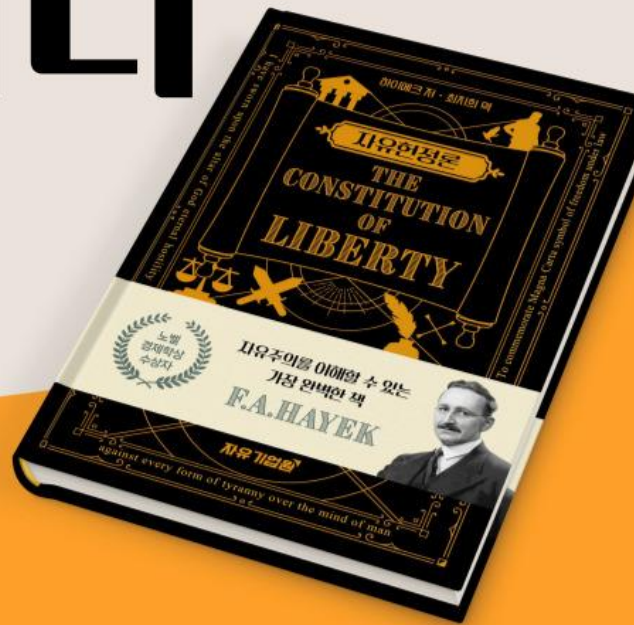


<자유헌정론> 출간 기념 북콘서트

자유 의 가치를 재발견하다



일 시

2022년 7월 19일 (수) 14:00

장 소

자유기업원 열림홀

주 최

재단법인 **자유기업원**

후 원

국민카드

PROGRAM

시 간		세부 내용
14:00 ~ 14:05	5분	■ 장내 정리 및 개회 선언
14:05 ~ 14:10	5분	■ 인사말 및 축사
[Session 1] 자유의 가치와 자유로운 사회질서		
14:10 ~ 14:40	30분	■ 발 제 : 민경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
[Session 2] 대 담		
14:40 ~ 15:10	30분	■ 토 론 : 민경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고기완 前 한국경제신문 국장
15:10 ~ 15:15	5분	■ 기념사진 촬영 및 폐회 선언

CONTENTS

[Session 1] 자유의 가치와 자유로운 사회질서

발	제	민경국 ■ 강원대학교 명예교수	3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[Session 2] 대 답

토	론	민경국 ■ 강원대학교 명예교수	17
		최진덕 ■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	21
		고기완 ■ 前 한국경제신문 국장	25

발 제

자유와 자유로운 사회질서

민경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

session 1

자유기업원 북콘서트

하이에크의 [자유헌정론]

북콘주제: 자유의 가치와 자유사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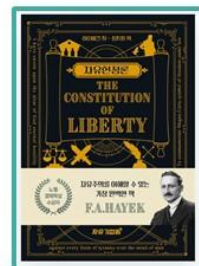
2023.07.19.



민경국 명예교수

목 차

- I. 자유헌정론의 취지와 목적
- II. 자유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?
- III. 자유와 자생적 질서
- IV. 자유와 법
- V. 자유와 복지국가
- VI. 자유헌정론의 영향



I. 자유헌정론의 취지와 목적

□ 자유헌정론의 취지

- ▶ 새롭게 번역된 <자유헌정론>이 자유기업원에서 지난 5월에 출간.
- ▶ 현대인을 위해 자유의 사용 법을 제대로 설명한 책. 이 책을 통해서 하이에크가 데이비드 흄 칸트와 나란히 고전적 자유주의의 반열에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음
- ▶ 50년대의 정치경제학적 배경: 흔히 하이에크 하면, <노예의 길>을 떠올리기 일수임. 이 책은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서일 뿐, 자유주의를 이해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책. 뿐만 아니라 당시 서구사회에는 자유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었음. 자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문헌이 없었음

I. 자유헌정론의 취지와 목적

- ▶ 정치사적 배경: 하이에크가 가장 우려했던 점: 인간 이성에 대한 낙관주의: 인간 이성은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다는 미신이 지배 서구사회에는 복지국가의 이상이 휘몰아쳤음. 서구문명의 성공을 가능케 한 자유의 가치가 쇠퇴해가던 시기
- ▶ 하이에크는 “자유야말로 모든 도덕적 가치의 원천”임을 주창하며 그 전통의 복원을 모색.

□ 자유헌정론의 목적

- ▶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고(제1부)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(제2부) 와 그리고 자유사회와 양립하는 각종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책을 써야 했음.

I. 자유헌정론의 취지와 목적

- ▶ 헌법이란 본래 정치질서의 기초가 되는 헌법적 장치다. 이런 장치를 규명하기 위해 정부의 구성과 기능을 탐구. 자유헌정론은 이런 의미의 헌정론이 아니다. 그래서 하이에크는 자유헌정론이라는 책제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실토, [법 이법 그리고 자유]의 머릿말
- ▶ 1950년대 하이에크가 시카고에 머물러 있을 때 쓴 것, 1960년 시카고 프레스에서 출간. 한국에서는 7년전에 번역 출간.
그러나 이 번역판은 통합본으로 출간

II. 자유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

□ 자유란 무엇인가

- ▶ 개인의 자유는 인류문명을 가이드한 원칙. 하이에크는 자유를 서구문명(CL) 나아가 인류문명(법 입법 그리고 자유, 이하 LLL)과 동일시, 그러나 오늘날 자유의 가치를 오해. 예를 들면 자유를 재정적 신체적 능력으로 여기는 것 등
- ▶ 자유는 강제 또는 억압이 없는 상태, 강제란 타인 또는 집단의 의지에 예속되는 것. 물리적인 해악을 가하거나 이를 가하겠다는 위협.
- ▶ 행동의 자유: 물리적인 해악을 가하거나 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개인의 행동에 간섭. 하이에크가 강조하는 것은 행동의 자유를 확립.

II. 자유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

- ▶ 행동의 자유는 경제적 자유를 포함/

□ 행동의 자유 vs, 생각의 자유: 경험 vs. 이성

- ▶ ‘인간은 생각한다, 고로 존재한다’는 존재의 원인을 사고에서 찾는 데카르트 사상. 행동의 자유, 특히 경제적 자유를 부정적으로 봄.
- ▶ ‘인간은 행동한다, 고로 존재한다’ 이성도 행동을 통해 비로소 생성

II. 자유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

□ 도덕적 가치

- ▶ “누구나 각자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할 줄 모르며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한다.”
- ▶ 자유를 개인의 존엄성과 연결하고 있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자유이다. 자유가 없는 곳에는 인간의 존엄성도 없다.
- ▶ 자유가 도구적인 이유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소중함.

□ 인간이성의 구조적 무지

- ▶ 인간은 이기적 혹은 이타적? 이것은 사회질서를 위해 중요하지 않음 인간 이성의 구조적 무지.

II. 자유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

- ▶ 무엇을 모르는가? 개인들이 제각각 가진 고유한 지식은 예를들면 개인의 선호, 그가 처한 상황에 관한 지식, 개인이 지닌 재주 능력 또는 그밖의 개인 지닌 자원. 이런 지식은 어느 한 장소에 몰아져 있는것이 아니라 도처에 마치 파편 조각처럼 흩어져 있다.. 이런 지식은 분산되어 존재. 제3자가 알기 어려운 사실에 관한 지식.
- ▶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.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개인들이 이용하도록 자유를 허용: "개인의 자유는 우리 모두의 불가피한 무지를 인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. 만약 전지전능한 인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의 존재 의미가 없다."

II. 자유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

□ 자유와 진보

- ▶ 자유의 궁극적인 가치는 발전: 발전이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의 발견. 그런 발전은 계획할 수 없음 미지의 세계로의 진입
- ▶ 우리가 기껏해야 알 수 있는 것: 계획하지 않은 문명의 성장을 갖어 오는 힘에 대한 이해와 그런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
- ▶ 하이에크는 진보와 관련된 헤겔의 변증법(부정과 부정의 부정)을 거부; 그런 변증법에 대한 반대 이유는 헤겔의 합리주의와 결정주의

III. 자유와 자생적 질서

□ 질서의 자생적 형성이 가능한 조건

- ▶ 인간들은 구조적인 무지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의 협력과 행동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? 혼란이 없이 질서가 가능한 조건: 타인들의 행동에 관한 기대가 가능해야 함
- ▶ 전수받은 지식의 이용: 규칙과 관습
- ▶ 당대의 사람들끼리의 지식의 소통

III. 자유와 자생적 질서

□ 축적된 지식의 전달: 행동규칙의 준수

- ▶ 연장, 관습 그리고 제도들. 이들은 모두 규칙 준수와 관련
- ▶ 이성과 언어를 사용하기 오래전부터 의식하지도 않고 말로 표현할 필요도 없이 규칙을 준수하는 행동. 말이나 또는 글자로 표현하는 일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최근의 일.
- ▶ 오늘날까지도 초의식적으로나 또는 습관적으로 규칙을 준수.

□ 당대의 사람들끼리의 지식의 소통

- ▶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서 지식의 이용이 가능: 모방, 가격 그리고 존중.
- ▶ 행동표준을 준수한 것에 대한 도덕적 또는 미적 존중의 표현에서 생겨난 산물. 시인과 부인의 신호는 규칙에 대한 준수를 촉진함.

III. 자유와 자생적 질서

□ 자유와 책임

- ▶ 결정론자들은 인간행동은 자동인형처럼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칭찬과 비난의 정당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. 칭찬과 비난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책임면제
- ▶ 자유의지론자들은 인간행동은 인과관계에서 벗어난, 요인(자아)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요인이 칭찬과 비난의 정당한 대상이라고 한다. 이것도 틀린 주장. 바로 그 요인도 칭찬과 비난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면제
- ▶ 책임부여의 기능: 그 사람을 현재 또는 장래의 그와는 다르게 만들기 위한 것.

IV. 자유와 법: 법이란 무엇인가

□ 법의 지배: 법실증주의에 의한 파괴

- ▶ “법의 지배는 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원칙이며 법이 지녀야 하는 일반적 속성에 관한 것이다. 이것은 오늘날 법치 개념이 모든 통치행위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적법성의 요구와 혼돈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.”
- ▶ 일반성(generality principle): 법 앞의 평등(신분적 평등) 신분사회를 무너트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.
특별법의 금지 법적 특혜, 금융·조세특혜 등 특혜를 허용하는 법은 법이 아님. 차별적인 내용을 지닌 것은 법이 아님.

IV. 자유와 법: 법이란 무엇인가

- ▶ 추상성(abstractness): 법다운 법은 특정한 장소 · 시간 · 행동목적 등과 독립적
 - 강남 지역 집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지 법은 법이 아닌 악법
 - 탈 목적성. 정치적 목표와 독립적. 분배, 자원배분, 고용보호, 최저임금제, 임대료상한제 가격규제 등은 법다운 법이 아님
- ▶ 법 다운 법은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. **불의의 행동을 금지**

□ 권력분립

- ▶ 국가권력을 제한하여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도입한 것이 입법 사법 행정의 유서 깊은 권력분립,

IV. 자유와 법: 법이란 무엇인가

- ▶ 행정부의 역할: 하이에크는 입법부보다 행정부에 더욱 큰 관심을 두고 있음
 - 타인의 강제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.
 - 정책과제: 복지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, 행정부의 권력비대화로 인한 개인의 자유의 억압

□ 민주주의

- ▶ 민주주의: 절차일 뿐 그것은 민주를 실체적 목적(평등 또는 자유) 으로 이해하는 것을 반대
- ▶ 민주주의 vs 자유주의의 차이; 권력(법)의 원천 vs. 내용
다수의 지배 vs 법의 지배

IV. 자유와 법: 법이란 무엇인가

- ▶ 자유헌정론: 제한된 민주: 법의 지배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민주를 억제
- ▶ 법 입법 그리고 자유: 헌법적 장치를 통한 제한된 민주

V. 자유와 복지국가: 새로운 가면을 쓴 사회주의

□ 새로운 가면을 쓴 사회주의

- ▶ 사회주의가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가 지배 그러나 서구사회에서는 사회정의 또는 복지국가의 새로운 가면을 쓰고 사회주의가 지배
- ▶ 온정주의적 폭력으로 정부는 공동체가 사용할 소득의 대부분을 빼앗아 가고 있음

□ 하이에크가 보는 복지국가의 경제정책적 현실: 법치위반

- ▶ 고용과 높은 노임을 강요하는 노동조합
- ▶ 평등분배를 요구하는 사회보장제도
- ▶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통화정책
- ▶ 보조금 임대료 규제를 통한 주택정책 그리고 공공주택

V. 자유와 복지국가: 새로운 가면을 쓴 사회주의

□ 하이에크가 보는 복지국가의 역할

- ▶ 일할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없거나 극빈자 또는 굶주린 자들을 공동체가 돌봐야 한다는 것.
- ▶ 보험가입의 의무화: 하이에크는 개인들의 자유에 맡기면 위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것이 나중에는 공동체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처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.
- ▶ 농업기술 혁신에서 오는 편익에 관한 정보의 공급 등, 농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
- ▶ 쾌적한 천연휴양지 역사유적지 등의 보호서비스의 국가공급

V. 자유와 복지국가: 새로운 가면을 쓴 사회주의

□ 최소국가가 아닌 국가활동의 질을 중시

- ▶ 최소국가는 하이에크에게 목표가 아님, 국가 활동의 질이 중요
- ▶ 국가활동의 질에 대한평가는 그런 활동이 특혜가 없이 보편적 편익을 주는가에 따름

VI. 자유헌정론의 영향

□ 자유헌정론은 1950년대 서구사회가 겪은 세가지 경험의 소산

- ▶ 인간이성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자유의 가치
- ▶ 법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자유와 법
- ▶ 복지국가의 가면을 쓴 사회주의에 비판에서 비롯된 자유주의
정책어젠더

□ 정치적 영향

- ▶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의 개혁 정책

□ 학문적 영향

- ▶ 질서이론적 질서정책적 접근방식



대 답

민경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

session 2

M E M O

[illegible]

대 답

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

session 2

M E M O

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otted lines.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,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practice. There are no margins, text,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.

대 답

고기완 前 한국경제신문 국장

session 2

M E M O

KB금융그룹

국민의 평생
금융파트너

세상을 바꾸는 금융

나, 우리, 모두가
바라던 카드를
만날 시간

KB국민

WE:SH 카드

My WE:SH / Our WE:SH / WE:SH All



time to
WE:SH

■ KB국민 WE:SH All 카드 연회비: 일반카드(국내전용(Local), 국내외겸용(VISA)) 2만원(기본연회비 7천원 + 제휴연회비 1만3천원), 모바일 단독카드(국내전용(Local), 국내외겸용(VISA)) 1만4천원(기본연회비 1천원 + 제휴연회비 1만3천원) ■ KB국민 Our WE:SH 카드 연회비: 일반카드(국내전용(Local), 국내외겸용(Mastercard)) 1만5천원(기본연회비 7천원 + 제휴연회비 8천원), 모바일 단독카드(국내전용(Local), 국내외겸용(Mastercard)) 9천원(기본연회비 1천원 + 제휴연회비 8천원) ■ KB국민 My WE:SH 카드 연회비: 일반카드(국내전용(Local), 국내외겸용(Mastercard, AMEX)) 1만5천원(기본연회비 7천원 + 제휴연회비 8천원), 모바일 단독카드(국내전용(Local), 국내외겸용(Mastercard, AMEX)) 9천원(기본연회비 1천원 + 제휴연회비 8천원) ■ 연체이자율: 회원별 / 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+ 3%p, 최고 연 20% 이내 ※ 단,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- 일시불 거래 연체 시: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(2개월) 유이자 할부수수료를 적용 -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: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수수료를 적용 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■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,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 ■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■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,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■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당한 경우(개인신용평점 낮음, 연체금 보유 등)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■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. ■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 ■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3 - C2b - 01317호 (2023.02.17 ~ 2024.02.16)

*** KB국민카드**

<자유헌정론> 출간 기념 북콘서트

자유 의 가치를 재발견하다

